

AI·데이터 입힌 스포츠 후원… SK·현대차, 태극전사 뒷받침

아시안게임 경기력 향상 ‘총력’
SK, AI 분석·현장 지원 확대
현대차, 양궁 맞춤 관리 강화

2026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SK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스포츠 후원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현지 맞춤형 지원을 앞세워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4년째 대한펜싱협회 회장사로 펜싱 대표팀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 후원에 자체 개발한 AI 전력분석 시스템 ‘SK T-FAN’을 처음 도입하며 지원 영역을 기술로 확대했다. SKT는 2003년부터 펜싱 분야에 누적 360억원을 지원해왔다.

SKT-FAN은 AI 컴퓨터 비전과 모션 분석 기술을 활용해 경기 영상에서 득실점 장면과 하이라이트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선수 움직임과 상대 전술·공격 패턴 등을 분석한다. 기존 전력분석원이 영상을 직접 확인하던 작업을 줄이고, 분석 결과를 훈련과 실전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T에 따르면 영상 분석 업무를 최대 90%



정익선 대한양궁협회 회장(왼쪽)이 29일(현지시간) 일본 오카자키 양궁경기장에서 양궁 대표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한양궁협회

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SK는 선수단 현지 지원도 강화했다. SKT는 대회 기간 의무 트레이너와 전력분석관을 추가 파견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경기 분석을 지원했다. 실제 한국 펜싱은 이번 대회에서 남녀 사브르·에페·폴리테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며 금메달 4개를 포함해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최신헌 SK네트웍스 명예회장은 이번 아시안게임 펜싱 대회 기간 내내 일본 현지에서 머무르며 선수들을 직접 챙겼다.

핸드볼에서도 SK의 스포츠 지원이 이

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08년부터 대한핸드볼협회를 맡아 국내 핸드볼의 저변 확대와 선진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았다. 이후 세대교체를 위해 회장직을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에게 넘겼으며, 박 사장 역시 대한핸드볼협회 장으로서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응원했다. 박 사장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응원을 보냈고, 한국 여자 핸드볼은 일본을 꺾고 8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양궁 대표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양궁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9일 일본을 찾아 컴파운드 대표 선수와 코치진을 직접 만나 격려했고, 30일에는 오카자키 경기장을 찾아 경기를 지켜봤다. 선수들이 경기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장 인근에 1인 1실 전용 숙소와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한국 조리사를 현지에서 파견해 선수별 식단을 지원했다.

훈련 단계부터 현지 환경도 반영했다. 진천선수촌에 실제 오카자키 경기장의 구조와 바람 방향 등을 재현한 훈련 환경을 구축했으며,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는 야구 관중의 함성과 응원가 속에서 활을 쏘는 소음 적응 훈련도 진행했다.

정 회장은 혼성 단체전 뒤 취재진과 만나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것 자체로 영광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컴파운드는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강팀이고 우리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며 “협회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과 인프라 협력

대우건설은 이강석 대표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표는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35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4박5일 일정으로 현지를 방문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이번 행사에 초청받은 곳은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대우건설



현대해상, 50주년 기념 행사

현대해상은 일본지사가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았다고 1일 밝혔다. 1976년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일본 도쿄에 진출한 현대해상 일본지사는 지난 50년간 현지 고객 및 파트너와 신뢰를 쌓으며 함께 성장해 왔다. 현재 일본 보험시장에서 영업 중인 유일한 한국 손해보험사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해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9월 30일 진행한 ‘2026 부모님 초청 행사’에 참석한 양사 가족들이 정비격납고를 견학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통합 출범 앞두고 가족과 화합 다져

대한항공·아시아나, 임직원 가족 초청
객실훈련센터·정비격납고 등 체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연말 통합을 앞두고 양사 임직원 가족을 초청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양사 임직원 및 부모님 총 240명을 대상으로 ‘2026 부모님 초청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9월 30일 열린 1차를 시작으로 10월 20일과 11월 12일 등 회차당 80명씩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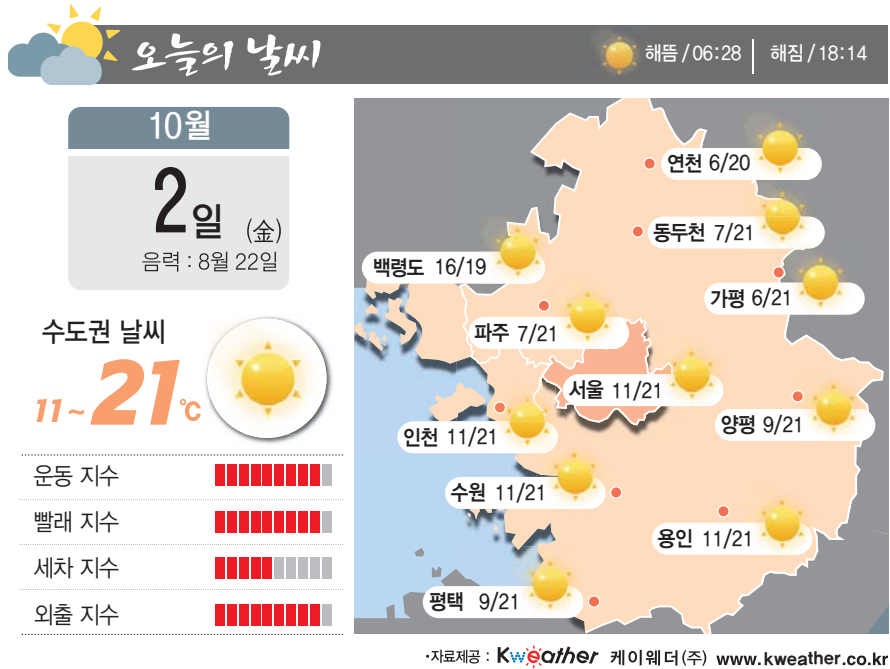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객실훈련센터, 운항훈련원, 정비격납고 등 회사의 주요 시설을 부

모님이 직접 체험하며 자녀의 직장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나항공 임직원과 가족도 함께 참여해 양사 통합의 의미를 나누고 화합을 도모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양사 임직원과 가족이 한데 어우러져 소속감을 높이고, 통합을 향한 유대감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행복한 일터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사는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양성운 기자



한화문화재단, 뉴욕서 韓 신진작가 그룹전

아트 오마이와 협업 전시
작가·필자 5인 공동 참여

한화문화재단이 뉴욕에서 한국 신진 미술작가와 해외 필자의 협업 전시를 개최하며 신진작가의 해외 활동을 지원한다.

한화문화재단은 오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뉴욕 전시공간 ‘스페이스 제로원’에서 신진작가 그룹전 ‘맥거핀(MacGuffin)’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뉴욕 예술가 레지던시 ‘아트 오마이’와 협력해 마련했다. 강동호, 고요손, 장종완, 김지선, 이안 하 등 한국

미술작가 5인이 작품을 선보이고 아트 오마이 문학 레지던시 출신 필자 5인이 각 작품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해석한 글을 함께 공개한다. 개막 행사에서는 고요손 작가의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작가와 필자가 교류하는 공개 낭독회와 토크 프로그램도 열린다.

재단은 ‘영민 해외 레지던시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아트 오마이에 한국 신진작가를 파견해왔다. 이번 전시는 이 과정에서 쌓은 협력 관계를 스페이스 제로원의 전시와 연계해 작가들의 국제 교류 기회를 넓힌 것이다. /원관희 기자 wkh@



소진공, 소상공인 생명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 단위의 생명안전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협력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엔컴퍼니그룹

이동약자 위한 ‘차량나눔’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사회복지시설에 전기 승합차와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등을 지원해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26 차량나눔’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초록우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이동 취약계층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초록우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승혁 기자 sh95@

CJ대한통운, 지역 청년 물류인재로 키운다

지역 연고 청년 우선 선발

CJ대한통운이 지역 청년을 물류 전문 인재로 육성하는 ‘물류공채’를 본격화한다. CJ대한통운은 전국 물류거점에서 근무할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물류공채’ 모집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전국 물류

거점의 운영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전국 물류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올해부터는 이를 ‘물류공채’로 개편하고 상·하반기 정기 채용 체계로 전환했다. 물류공채는 특성화고와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 졸업생 가운데 지역 연고가 있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유진그룹, 3억 걸음 모아 자립준비청년 지원

이달 한 달간 ‘가치걸음’ 진행

유진그룹이 일상 속 작은 걸음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유진그룹은 10월 한 달간 걸음 기부 캠페인 ‘유진이랑 가치걸음’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유진이랑 가치걸음’은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걷는 걸음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면 유진그룹이 기부금을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걸음을 나눔 활동과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캠페인은 걸음 기부 플랫폼 ‘빅워크’를 통해 참여자들의 걸음을 모아 총 3억 걸음 달성을 목표로 하며, 목표 달성 시 유진그룹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인사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종혁 ◇상임이사 △장진업 △김현

◆홈쇼핑 (승진) ◇상무급 △영업본부장 이성훈 △방송본부장 한복현 △중기지원본부장 이현승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정치팀 부장 이해완 △정치경제부 경제팀 부장 박기락

부음 ▲박민출씨 별세, 박병한(전 YTN 선임기자)씨 부친상=9월30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3일 오전 6시30분. 02-2072-2010